〈달라이라마 제안〉

'행복수업' 인도 공식교과목 채택

7월부터 시행… 학생 80만명에게 적용돼

인도 교육부, 6월 20일 발표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해당
4년간 청소년 자살 3만 명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 전망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의 명상을 토대로 한 '행복수업'이 인도 수도권 델리지구의 공식교과목으로 채택됐다. 이 행복수업은 티베트의 불교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오랫동안 제안한 것으로 지난 6월 21일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 '더 힌두' '인디아 투데이' 등의 인도 현지 언론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6월 20일, 마니쉬 시소디아(Manish Sisodia) 델리 교육보좌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7월 2일부터 델리지구의 공립 교육기관에서 행복수업이 공식교과목이 될 것이며, 유치원부터 8학년(한국의 중학생) 학생까지 시행된다"고 공식발표했다. 시행기념식에는 달라이라마가 공식 참석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들은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를 중심으로 한 델리지구에 공립학교는 1천 개소가 넘고, 적용되는 학생들은 약 80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시소디아 교육보는 "이번 행복수업에는 명상이 포함되며, 도덕적 가치와 정신활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전인적 인재상을 함양하고, 인간의 행복을 통한 사회변화를 이루려는 데 목표가 있다"고 교과목의 의의를 밝혔다. 이어 "10년 이상이 지나 이 교육을 받고 자라난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 각계로 진출했을 때의 기대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결과에 대한 예상을 덧붙였다.

델리 교육부는 현재 교사들을 상대로 해당 수업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교과목에 대한 라디오와 TV 등을 통한 홍보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행복수업은 다른 교과목과는 다른 관점에서 진행되기에 연수에도 신중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먼저 교사들이 학생의 행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연수내용을 전했다.

행복수업의 커리큘럼에는 인도 전통



마네쉬 시소디아 델리 교육보좌관(왼쪽 첫 번째), 델리 주수상 아르빈드 케즈리왈를 접견하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인디아 투데이

도덕은 물론, 평화와 사랑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포함된다. 불교의 자비와 명상도 함께 교육된다. 특히 학생들 스스로가 행복이라는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명상실습이 중요하게 교육될 예정이다.

현지 언론들은 행복수업의 조속한 도입이유로 최근 심각한 학생 행복문제를 꼽았다. 현재 인도에서는 과열된 교육열과 함께 학생들의 행복지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이래로 3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 자살자가 나왔으며, 가장 어린나이는 15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를 의식한 듯 델리 교육부의 공식발표문에는 "이번 수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바는 '교실에서 진행되는 교육 밖에서 배우는 행복'이 있다는 것이며, 학생들의 행복도가 그들의 창의성과 활동성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약 4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만든 커리큘럼을 시범 적용했다. 3월에 발표된 중간보고에는 단 2달 만에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급상승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복수업에 대해 제안자인 달라이라마는 "물질만능주의에 강력한 대안은 젊은 세대에게 마음에 대한 교육의 진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복이란 사회의 변화가 아닌 개인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개인의 변화가 그 가족을 변화시키고 사회의 흐름을 바꾸듯, 개인의 행복은 모든 사회의 행복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이번 행복수업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불보살의 가피가 함께하시길 기원한다"고 축복했다.

명상과 정신적 가치를 가르치는 행복수업이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이 엄청난 교육실험에 귀추가 주목된다.

美불교, 트럼프 이민 정책에 '뿔났다'

라이언스로어, 불교도 공동 행동 '주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가족 격리 정책이 전 세계적 지탄을 받는 가운데, 미국 불교도들도 일제히 분노를 표출하고 나섰다.

불교 외신 '라이언스로어(Lion's Roar)' 6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불교도들은 미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의 부모와 자녀를 격리시키는 조치를 지속하는 데 대해 공동 행동을 자처하고 나섰다.

우선 200여 명의 불교 교사는 "가족 분리를 끝내라"는 촉구 서명에 동참했으며, 300여 명의 불교도 시위대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주변을 돌며 '침묵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불교 수행자 레이 버크너(Ray Buckner)는 "불교도로서 나는 도덕적으로 폭력에 반대하며,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숨 쉬려는 사람들과 연대 의식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특히 휴스턴 젠 센터의 가드윈(Godwin) 주지 스님은 휴스턴 내 불교 지도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이 같은 도덕적 분노에 직면했다. 휴스턴에서 너무나 잔인하고 부당하게 학대당한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0여 명의 불교도 시위대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주변을 돌며 '침묵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이밖에 선수행 교사 조안 할리팩스(Joan Halifax)는 라이언스로어 기고문을 통해 "나는 이 시대의 민주주의가 연민의 적자와 보전의 부재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티베트 정통 명상 교사 수잔 카이저 그린랜드(Susan Kaiser Greenland)도 트럼프의 무관용적 이민 정책에 대해 불교도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테러로 파괴된 관음상 10년 만에 복원

이탈리아 고고학자들
파키스탄 스와트계곡서

2007년 탈레반 의해 파괴
마애불 테러 전 연습용으로
왼쪽 다리 완전복원 안 돼





파괴되기 전의 마애관세음보살상(왼쪽)과 복원 후 야외갤러리에 설치 중인 관세음보살상. 사진출처=오스트리아 과학 아카데미(ÖAW) · 던닷컴

이슬람 무장테러단체인 탈레반의 테러로 파괴된 마애관세음보살상이 10년 만에 복원됐다고 6월 21일 파키스탄 인터넷 매체 '던닷컴(dawn.com)'이 전했다.

지난 2007년 9월 탈레반은 스와트(Swat)계곡의 자한 아바드(Jahanabad) 마애불을 테러하면서 함께 있던 마애관세음보살상을 파괴했다. 마애불은 이탈리아 고고학자들에 의해 4년 6개월에 걸쳐 복원됐지만 산산조각난 관세음보살상 복원은 요원해 보였다.

그러나 복원팀은 자한 아바드 마애불에 이은 불상복원으로 이 관세음보살상을 선택했다. 복원팀은 보살상의 파편을 수습하고, 파괴 전에 촬영된 사진과 조사 보고서를 참조해 2015년 복원에 착수했다.

복원팀의 팀장 올리베리(Luca M. Oliveri) 박사는 "이 불상은 7세기경에 조성된 마애불상으로 고대 스와트 계곡, 자한 아바드 지구의 불교유적군에서 중요한 유물이다. 당시 이곳을 순례한 구법승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불상은 인드라부티(Indrabhuti) 사원에 모셔졌던 것이다. 정확한 소재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불상"이라고 말했다.

복원팀연구원 안나 필리젠지(Anna Filigenzi) 박사는 "스와트 계곡은 고대에 웃디야나(Uddiyana)로 불리던 곳이다. 이곳의 불교미술은 북부인도와 히말라야 문화권의 불교미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불상의 복원은 불교미술의 근원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불상이 가진 불교미술학적 가치를 밝혔다.

복원팀은 복원 과정에서 "불상의 최상부와 최하부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폭파한 흔적이 나왔다. 이는 자한 아바드 마애불을 테러하기 전에 연습용으로 이 불상을 폭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이로 인해 불상의 왼쪽 다리가 완벽히 복원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복원이 완료된 관세음보살상은 스와트 박물관 야외 갤러리에 전시하기로 결정됐다. 스와트 박물관의 큐레이터 파이술레흐만(Faizur Rehman)은 "스와트 계곡 전역에 파괴된 불상은 헤아릴 수 없다. 파괴된 불상들을 박물관으로 가져와 복원하는 일은 단순히 유물의 복원을 넘어서, 파괴된 스와트의 문화와 예술을 되살리는 일"이라고 복원 의의를 밝혔다.

박물관 측은 이번 관세음보살상의 복원전시를 시작으로 박물관의 정원을 야외 갤러리로 조성할 것으로 전했다. 갤러리에는 자한 아바드 불교유적군의 불상들과 함께 스와트 지역의 마애불과 석불이 전시될 예정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日 승려의 '이중생활'… 긴 머리에 힙합을?

더힌두, 아키노부 타츠미 스님 '음악 인생' 조명

일본 승려 아키노부 타츠미는 독특한 '이중생활'을 한다. 법회를 집전하면서 디제잉을 하는 것. 전형적인 승려라고 보기 어려운 그는 긴 머리에 포니테일로 머리를 묶고 비트박스를 한다.

인도 언론 '더힌두(The hindu)'는 6월 15일 힙합에 빠진 일본 승려 타츠미를 조명했다. 타츠미는 태어나기 전부터 음악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시작됐다고 회상했다.

"어머니는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배에 스피커를 갖다 대고 클래식 음악이나 70년대 디스코 음악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성장한 후 음악을 듣고 연주했을 때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언젠가 꼭 들어봤던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는 10대 때 힙합을 시작했다. 하지만 '승려' 신분으로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 때문에 규슈 지역에서도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사원에서 비밀리에 녹음 작업을 했다. 힙합의 직설적이거나 다소 공격적인 가사는 피하려고 노력했다고. 아름다운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아키노부 타츠미 스님이 디제잉을 연습하고 있다. 사진출처=더힌두

절벽 끝에서 힙합을 연습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수년간 '야행성 취미'를 이어오던 타츠미는 38살이 된 지금, DJ로서 신도들 앞에 선다. 노보살들에게 처음 디제잉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들은 다소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를 '펑키 스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타츠미는 "4년 전 다발성 경화증으로 투병 중일 때도 음악을 멈출 수 없었다"며 "병을 이겨내고 나서는 노보살들과 심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기분이다. 투병의 경험과 음악을 토대로 더욱 유명해지겠다"고 능청스럽게 덧붙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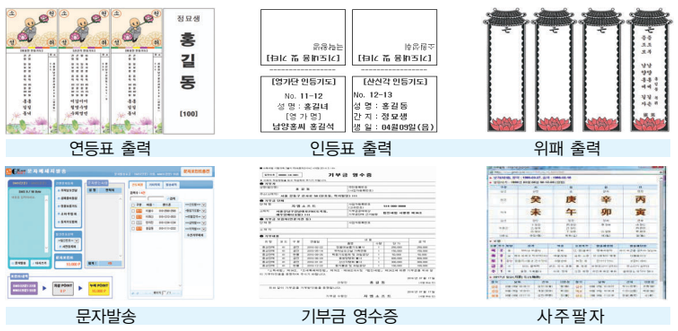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내원궁 회향선원에서
부처님 진리를 배우고 실천 하세요

재가불자 내원궁 회향선원에서는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고 생활하실 재가불자님을 모집합니다.

내원궁 회향선원 입주 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 입니다.
5년 동안 1인 1실 원룸에서 생활하고, 모든 숙식은 내원궁 회향선원에서 제공해 드리며, 5년 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즉, 생활 전액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조건입니다.
2인 1실은 보증금은 1억이며, 재가불자에 한하며 스님은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많은 문의 및 방문 바랍니다. H·P 017-201-0037

